나만의 세상을 그려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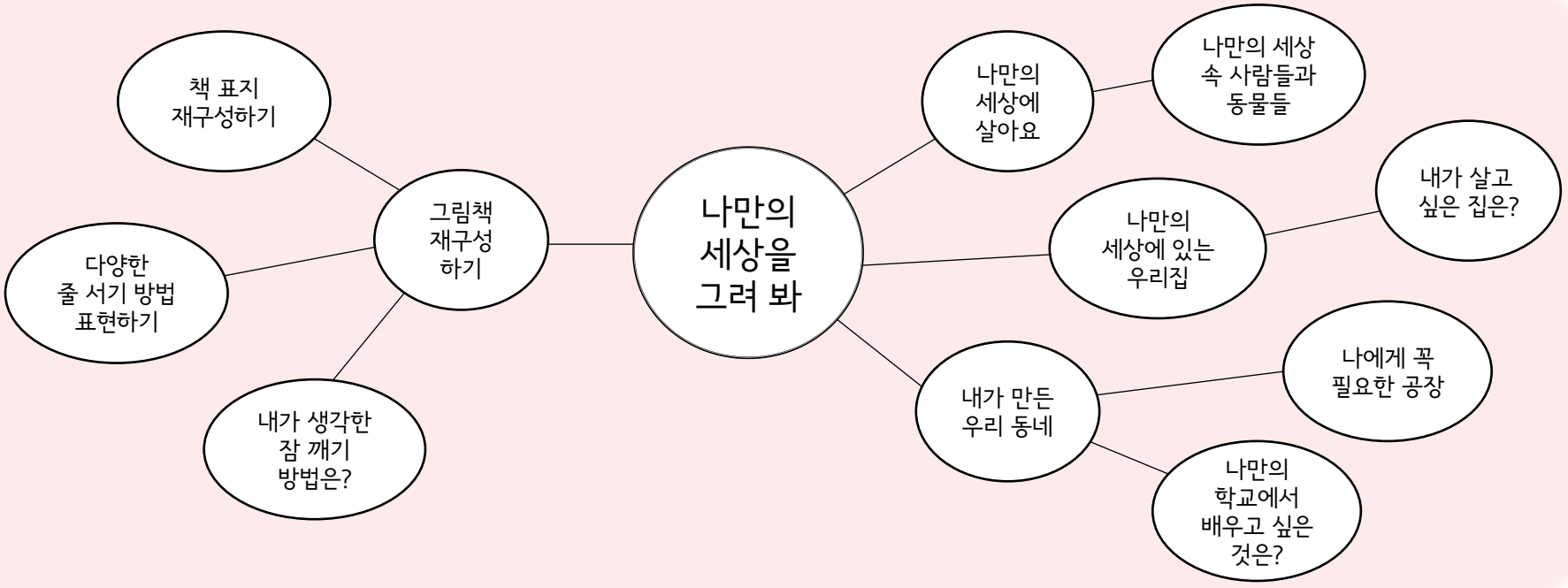
2021.03.15.~2021.04.19.
슬기튼튼 1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튼튼유치원

‘나만의 세상을 그려 봐’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었던 다양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나만의 세상을 그려 봐”라는 그림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들이 다양한 상상들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상상과 여러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기르고자 “나만의 세상”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03.15. ~ 04.19.)



그림책 재구성하기 I

책 속표지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들이 다양하게 변신한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열쇠, 메달, 접시, 사자의 얼굴, 사람 얼굴, 아이스크림, 거북이 등껍질 등 다양한 것으로 변신시켜보았습니다.

"노란 동그라미가 열쇠도 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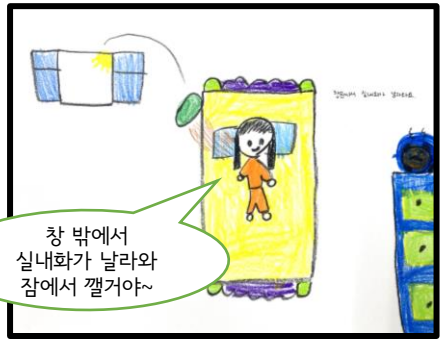
그림책 속에 나온 것 중에서 그림책의 표지의 노란 동그라미들이 다양한 것으로 변한 것을 보며 호기심을 가졌고, 지루하고 하기 싫었던 줄서기는 미끄럼틀 타며 줄 서기, 나무에 묶여 있는 줄 타기를 하며 줄서기, 악어 머리 위에 줄서기로 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줄 서기 방법을 보며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그림책에 나온 내용외에 다양한 줄서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있게 그림을 종이에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책 재구성하기 II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깨고 싶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저는 풍선이 침대에 매달려서 둥둥 뜨며 잠에서 깨고 싶어요!",*
***"저는 하늘에서 초콜릿이 떨어져 입에 쏙! 들어가서 달콤하게 깨고 싶어요~"*라고 표현하며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림책에 나온 잠 깨기 방법 중에서 코끼리가 방구 뀌는 소리에 잠 깨기, 새가 날라가는 소리에 잠 깨기 등에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잠 깨기 방법에 대해 상상을 하던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만의 세상 속 사람들

"마른 사람은 길쭉해 보여요!"

그림책 속에 여러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재료로 표현된 모습을 본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날씬하니까 빨대같아요!", "제 동생은 귀여우니까 계란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나만의 세상 속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특징을 생각해보며, 탁구공과 빨대, 집게, 막대, 숟가락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바깥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관찰하더니 "돌멩이가 내 동생처럼 동그래요!"라고 이야기 하며 동멩이를 쌓으며 사람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크레파스를 이용해 돌멩이에 얼굴을 그리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나는야, 동물 발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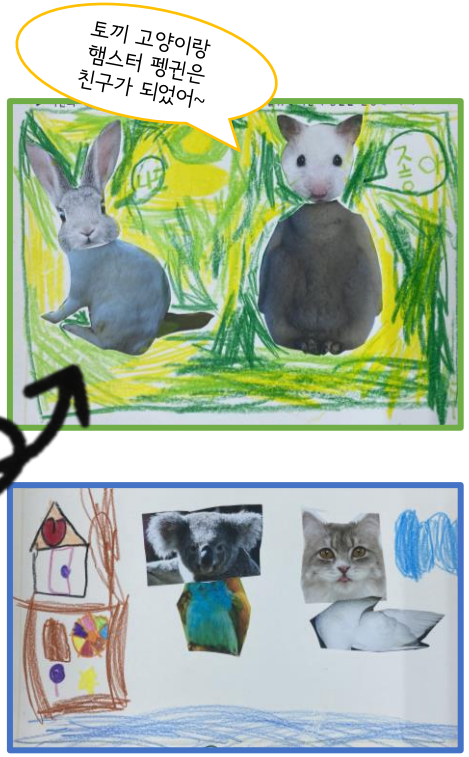
"얼굴은 고양이! 몸은 코끼리면 좋겠어!"

그림책 속에 나와 있는 머리는 흑표범, 몸은 코끼리, 꼬리는 말로 되어있는 동물 그림을 본 친구들이

*"얼굴은 햄스터고 몸은 펭귄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상의 동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 튼튼 1반 친구들은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동물들의 사진을 이용해 나만의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얼굴과 몸 사진을 이용해 나만의 동물을
만들어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I

"저는 미끄럼틀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림책에 나온 나만의 집 상상하기 방법을 본 친구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지으며 놀이를 하였어요.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재료에 집 그림을 그릴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들이 집은 딱딱하고 튼튼하니까 종이가 아닌 박스에 그림을 그리자며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계단이 아닌 미끄럼틀이 있어서 층을 신나게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방이 많아 친구들과 동물들과 함께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II

슬기 튼튼 1반 친구들의 집을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물감으로 알록달록하게 표현해주었습니다.

"저는 알록달록한 집에 살고 싶어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표현한 친구들이
슬기 튼튼 1반 친구들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어 보자며 집을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고 물감으로
쓱쓱 색칠하여 알록달록 멋진 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색깔의 물감을 섞어보며 섞이는 과정을 탐색해보고,
물감을 칠해보며 다양한 색으로 집을 꾸며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집을 만든 후, 친구들이 " 집으로 가는 길에 통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하여 생각을 모아 큰 박스로 모양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슬기 튼튼 1반 친구들의 생각을 모은 우리들의 집과 통로가 완성되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공장

"스파게티 공장은 스파게티처럼 생겼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친구들은 좋아하는 음식과 장난감 블록, 다이아몬드, 텔레비전, 안경, 시계 등 다양한 물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의 모양을 상상해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의 공장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스파게티 공장은
넓어서 미로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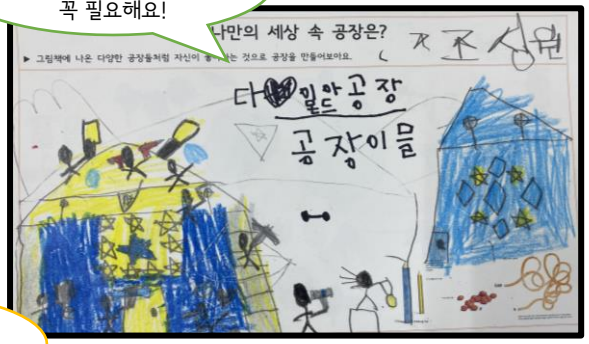
블록 공장은
공장들이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물건의 모양을 생각해보고, 공장의 입구와 창문, 또 공장안의 모습 등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봇 공장은
모든 것이
로봇이에요!

우산 공장은 지붕이
큰 우산이라 비 올
때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든 다 살 수 있어서
꼭 필요해요!



나만의 학교에서는?

"저는 학교에서 염색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림책 속, '나만의 학교'에서는 음료수 빨리 먹기,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나는 방법, 아이스크림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워가는 것을 읽은 친구들이 상상한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무엇일까요?

나만의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친구들이 코끼리를 타는 법,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 집을 짓는 방법, 예쁜 빙수를 만드는 방법, 머리를 염색하는 방법 등 재미있고 다양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만의 길 디오라마 만들기

긴 종이를 탐색하던 친구들은 동그랗게 말아 보기도 하고,
끝에만 풀칠을 해보며 미끄럼틀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의 길은 콩콩이 길이예요!"

뭐든지 상상할 수 있는 나만의 세상의 동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양한 색깔의 긴 종이를 이용해 상상해보던 친구들이 종이를 접고, 자르고, 모양을 내보며 다양한 모양의 길을 꾸며 나만의 동네를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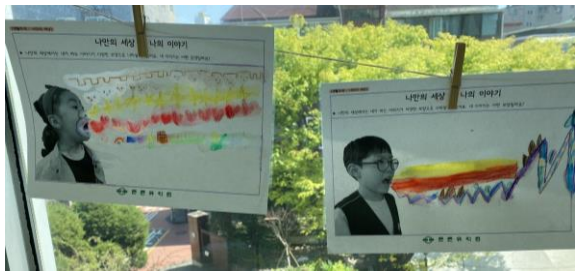
긴 종이를 접어 지그재그 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길을 만들던 아이들이
"여기는 콩콩이 길이 있는 놀이터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은 미끄럼틀이고 한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라고 표현하며 이야기를 지으며 놀이하였습니다.

내 이야기에는 모양이 있어요

"내가 행복할 때는 입에서 하트가 나와요!"

친구들과 놀이하다 다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와 사랑하는 친구에게 다정하게 이야기 할 때
어떤 점이 다를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목소리의 크기가 다르고 표정도 다르며, 말투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상상을 시작한 아이들이 내 이야기의 다양한 모양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이야기의 다양한 모양을 상상하던 친구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파도모양이랑 하트 모양이 나와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가 났을 때는 입에서 불이나는 모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I

"저는 바닷속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바닷속 세상에 살면 자동차 대신 거북이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표현하며 다양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상상 주머니를 마음껏 펼쳐보았습니다.

"바닷속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수영을 잘해야 하니까 모두 인어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는 친구들과 견학도 하고, 가족들과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지금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음식인 세상에서는 뭐든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건물과 자동차, 도로 등 뭐든 것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모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땅이 없는 세상에서는 뭐든 것들이 날라 다녀요!" 라는 친구들의 말처럼 건물과 사람들, 동물들, 자동차들 등 뭐든 것들에 날개가 달려있어 날아 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II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내가 꿈꾸는 세상”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한 친구들이 슬기튼튼 1반이 바라는 세상은 웃음만이 넘치는 행복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책 놀이를 통해 슬기튼튼 1반의 모든 친구들이 앞으로도 살아갈 세상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